

현대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500억 규모 첫 투자

데이터 센터 구축...광주시 11개 기업 1108억 투자유치·260명 고용창출

광주시와 현대차 그룹이 손잡고 만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등 집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광주시도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을 밑거름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현대자동차(주)

와 5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투자유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는 광주시와 현대차 그룹이 공동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한 이후 현대차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일단 500억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50명을 신규 채용하기

로 했다. 데이터센터는 IT설비의 핵심시설로, 현대차는 중요한 기업 정보를 이곳에 모두 저장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유치로 정부의 제2전산센터와 함께 광주가 데이터센터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각종 정보가 저장된 서버컴퓨터(Server computer)가 수천대 이상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구축 이후에도 자치단체에 막대한 전기요금과

세금 등 추가 이익을 안겨주는 등 환급받을 수 있는 거취로 통한다.

현대차 그룹의 광주 투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등과 관련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현대차 그룹의 광주 투자가 소식에 알려지면서 자동차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도 줄을 잇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현대차 그룹과는 별도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엘플러스 등 유망 중소기업 등 10곳과 60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엘플러스

등 3개사 333억원, 금형업체인 케이피엔(주) 등 2개사 120억원,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주)씨지코어 등 2개사 70억원, 에너지 관련 기업인 (주)하이솔루션을 포함한 3개사 85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로 28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의 30%를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올해 착공해 내년부터 공장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광주에는 R&D특구에 연구기관이 밀집돼 있는 산업 인프라, 좋은 정주여건, 안정된 노사문화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특히 현대차 그룹과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양효섭 광주시 투자유치과장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지원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등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폐식용유 재활용 하고 이웃도 돕고... 광주시 북구는 지난 31일 오치1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무공해 비누 제작' 행사를 가졌다. 이날 폐식용유 8통으로 만든 400여장의 비누는 판매해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된다. <복구형 제공>

시·도에 '재난 대응' 부처 신설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개정안 의결

재난발생 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광주·전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에 재난안전부처를 증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도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실·국·본부부를 신설하고, 부서

장 직급의 경우 서울시는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안전 등 임무를 수행하는 면장의 경우 읍장·동장과 동일하게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효율적 대응과 시·도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하위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나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 인증 및 등급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2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경비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에 쓸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번 재·보선에 48억962만8000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홍보비 13억9000만원 등 61억9962만8000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400% 넘으면 바로 청산

행자부 종합혁신방안 마련...외부전문가 참여 설립 심의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자체·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청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여수도시공사, 태백관광공사, 충남농축산물유통센터는 경영 악화로 소속 자치단체에 큰 재정 부담을 안기고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지난 2010년 '청산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들 지방공기업 3곳은 아직도 법인격을 유지한 채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청산 요건과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된다.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

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차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이자비용) 0.5 미만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공기업 가운데 사업전망이 없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는 행자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청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해산에 돌입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난 31일 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방공기업 설립도 더 엄격해진다. 현재는 설립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도가 타당성 연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모든 검토보고서는 공개되

며,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된 검토기관은 일정 기간 용역에서 배제된다.

행자부는 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방공기업 설립심의를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은 중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전수 조사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시장성테스트를 거쳐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되면 민간이양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중복 지방공기업 정비 ▲성과 미흡 지방공기업 임원 '2인 아웃' ▲총사업비 일정 규모(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실행제 도입 ▲행자부에서 시군구 지방공기업 평가 등도 추진된다.

/*박진표기자 jkpark@연남뉴스

오늘 여수박람회장서 '어업인의 날' 행사

전국 어업인의 최대 축제인 '제4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디지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업인, 정부 부처, 지자체, 국회의원, 수산단체 등 1000여명이 참가한다.

식전행사로 방류되어 점음이 4만3천마리를 빅소쇼 해상무대에서 방류하며, 기념행사로 유공자 포상에 이어 미래수산업 출항식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어 학술행사에서 수산업 미래산업화를 위한 포럼이 열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자원 감소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어업인을 격려하고 수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공모를 열어 올해 행사 개최지를 여수시로 최종 선정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한 인프라와 관광 시설, 남해안 최고 수산도시로서의 위상 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한편 '어업인의 날'은 지난 1969년 4월

1일 '어업인의 날'로 출발, 2011년 11월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신장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본사 인사

- ▲이종윤:서부취재본부 영광주재부국장
- ▲임동현:서부취재본부 무안(남악)주재기자
- ▲배영재:동부취재본부 광양주재 기자 (4월 1일자)
- ▲조익상(서부취재본부 영광주재):의원면직 (3월 31일자)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임동 광진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